



금단의 숲: 곳자왈, 숲의 기록  
Forbidden Forest: Gotjawal,  
memories of forest

박형근  
Hyung-Geun Park

경기창작센터  
Gyeonggi Creation Center

2013 경기창작센터 하반기  
특별기획전 <기억>

기획  
경기창작센터

총괄진행  
김진희(학예팀장)

진행  
김현정, 윤가혜, 최정수, 박슬기

행정지원  
채치용(기획사업팀장), 차영근,  
김미선, 이문희, 김홍환

큐레이터 어시스턴트  
이현인, 서정민, 조혜정,  
이주현, 조근하

시설지원  
박문철, 김원철, 박종호, 김남영,  
조관휘, 박종원, 강제을,  
김병완, 김일용, 심종범, 김옥엽,  
유일순, 이정숙, 신진영

디자인  
워크룸

인쇄  
인타임

번역  
신해린, 김현정

편집인  
경기창작센터장 박희주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엄기영

발행처  
경기창작센터

발행일  
2014. 3. 4

본 출판물은 2013 경기창작센터 하반기  
특별기획전 도록으로 경기창작센터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창작센터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t 032 890 4820  
f 032 890 4880

www.gyeonggicreationcenter.org

Twitter  
@creation\_center

Facebook  
Creationcenter

Gyeonggi Creation Center:  
Special Exhibition in 2013  
<Memory>

Organised by  
Gyeonggi Creation Center

Publication in Charge  
Kim Jinhee(Chief Curator)

Curatorial Support  
Kim Hyun Jeung, Kaye Yoon,  
Park Sulki, Choi Jeong Soo

Administrative Support  
Choi Chi Yong(manager),  
Young Kun Cha, Mi Sun Kim,  
Lee Moon Hee, Kim Heung Hwan

Curator Assistant  
Lee Hyunin, Seo Jeongmin,  
Cho Hyejung, Juhyun Lee,  
Keunha Cho

Maintenance Support  
Park Moon Chul, Kim Won Chul,  
Park Jong Ho, Kim Nam Young,  
Cho Kwan Hui, Park Jong Won,  
Kang Jae Ui, Kim Byong Wan,  
Kim Il Yong, Sim Jong Bum,  
Kim Ok Yeup, You Il Soon,  
Lee Jeong Sook, Sin Jin Young

Graphic Design  
workroom

Printing  
intime

Translation  
Haerin Shin, Kim Hyun Jeung

Editor  
Park Hui Joo  
Director of Gyeonggi Creation  
Center

Publisher  
Um Ki Young  
President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Date of Publishing  
4 March, 2013

This book i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catalogue for special  
exhibition <Memory> of 2013 and  
GCC artists' activities.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of Gyeonggi Creation  
Center.

© Gyeonggi Creation Center

101-19  
Seongam-Ro, F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t 032 890 4820  
f 032 890 4880



<기억>을 열며

경기창작센터의 2013년 하반기 특별전은 당해 입주작가 5인(팀)의  
소규모 개인전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는 경기창작센터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이후 대규모 상설전으로 입주작가 쇼케이스 전시를  
선보인 데 이어, 전시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우 실험적이고 다매체적인 방식의 작업들을 선보였고 참여작가인  
김미란, 박형근, 고영택, 이혁준, ETC 총 5팀이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하여 전개해 오던 작품들과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향후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선보일 수 있는 새로운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용성,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기창작센터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아키요시다이  
국제아트빌리지(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아온 이혁준의 결과보고전이자  
소유와 욕망이라는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삶과 그  
본질을 돌아보고자 반문하는 새 작업을 소개하는 <AIAV결과보고전:  
소유\_돌>, 어느 날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점점 무너져갈지도  
모르는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징후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영택의  
영상설치 작업 <징후-무너지는 것의 무게>, 작가의 꿈과 환영으로부터  
출발하여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거대한 와이어설치와 영상으로 보여주는 김미란의 <기계의 무의식>,  
작가의 고향인 제주도의 생태지대 곳자왈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을 가진 자연지대에 대한 기억, 그 장소가 감내해야 했던 역사적  
상흔을 통해 작가를 지배하는 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사진작업으로  
보여주는 박형근의 <금단의 숲: 곳자왈, 숲의 기록 2009-2013>,  
경기도 연안 일대의 섬들에서 정주하며 사라져가는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 한 여성의 일대기를 만든 프로젝트, ETC의  
<시화, 시가 되다> 는 모두 ‘기억’(memory)을 매개로 독특한  
그들만의 내러티브를 구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In his work “Forbidden Forest (2009-2011),” for the commemorative exhibition, for winning a ‘Daum Artist Prize,’ he practiced austerity by giving less of artistic staging or subjective intervention. He showed the true facets of Nature that he met in the entire screen by adopting a panoramic format. Because it is photography, the moment of meeting an object is particularly special. It is not a burial as an object or restoration becoming a subject. In photos, it is a phenomenal meeting, as if the object and the subject are tightly clenched with each other. The mystique filled in the photos came from the experience that one becomes oneness with Nature. It is based on the organic outlook of the world in which micro particles and gigantic beings maintain a mutually depending relationship weaving a fine mesh net. The same mystic mood also seeks to emit the intrinsic power of Nature i.e., the heterogeneous and impenetrable force. The Nature in his universe elicits the feelings of relief and a shiver of natural awe, beauty and sublimity, simultaneously. Classicism and romanticism are also detected there, as well.

In contrast, his “Untitled” series are symbolic while the “Tenseless” series are surrealistic. However,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termine his works as one of the schools or ‘-isms.’ The “Cosmos (2010)” is a sky looked up at while lying down in a forest. It looks like a night sky interspersed with a number of stars of the Milky Way, in outer space. As the wind blew, the aged forest let the rays of light shine down through the interstices of the densely covered leaves. An illusory scene was created. The irregular ruptures tearing the black veil let viewers leap and move to another dimension. A broad daylight is turned into a pitch-black night. A forest is transformed into a cosmos. It is not an artificial fabrication but a moment of a miraculous meeting with continuing reverberations from corresponding with Nature.

Looking at the scattering rays like the stars in the Milky Way, makes viewers think of themselves as one element of the great universe and a grain of sand at the beach. By capturing a moment of the swaying universe, the photo artist Park, lets us know that Nature itself, as a whole, is art. Nevertheless, the moment that Nature becomes art does not visit at anytime or to anyone. It is given to an artist who waits for a long time, to be there at the meeting when eternity and the transient moment get together. The photo, “Forbidden Forest (2010),” was taken in a forest hundreds of years old with a suggestive purpose for the wellbeing of a community. Like a living fossil, the photo has the sacred energy that may be found only in an antiquated place. Park’s photos focus on restoring wildness in different places. The dark green tone of the thick forest is the unique vegetation inhabiting in the lava soil. The trajectory of Nature’s energy that flowed in and swirled around the forest for million years, is completely preserved. There is no vestige of the human touch in this ‘Forbidden Forest,’ but there must be someone who found this place and worked to keep the forbidden forest as it is. The “On the Edge (2010-2011),” is a series of long screen photos connected like a folding screen. With a dark background, only the planet-surface, like the ground, gives a clear reflection. A unique view of the lava covered coastal area on Jeju is transformed into a scene with rocks in a variety of shapes. Without any addition or omission, this familiar place soon appears as a strange planet, a deep seascape, or a piece of oriental painting in an antiquated picture book.

His preferred Nature is a place where the texture and the touch of the sediments that fell in layers can be lively felt. His recent photos, composed of panoramic moments, have less of the artificial staging. That does not mean that they are not mere dry pictures of some objective articles. He wants to revitalize the Nature’s primitiveness that either disappeared by the prevalence of the mechanical civilization, or has been domesticated changing its appearance into a more humanized one. In his efforts, there exists not only the unique shape of Nature but also the energy of Nature. The energy of Nature holds diverse states and levels of strength, from the old and archaic to a newly emerging type of energy. The meeting and parting of different energies make the Nature in his photos appear as a dream stage to emit his poetic sentiment and unconsciousness.

올해 ‘다음 작가상’ 수상 기념전에 발표된 [금단의 숲] (2009–2011)은 인공적 연출과 작가의 개입이 줄어들고, 파노라마 형식을 통해 그가 만난 자연의 진면목을 화면 가득히 펼쳐냈다. 작품의 형식이 사진이기 때문에 만남의 순간은 더욱 각별하다. 거기에는 객체로의 매몰도 주체로의 환원도 아닌, 객체와 주체가 서로를 움켜쥐는 듯한 현상학적 만남이 있다. 작품에 가득한 신비로움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체험에서 왔다. 그것은 미소한 것부터 거대한 것이 촘촘한 그물망을 이루며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유기적 세계관에 기초하는 것이면서도, 자연 자체에 내재된 이질적이고 불가해한 힘의 방출을 도모한다. 안도와 전율, 자연스러움과 경외감, 미와 숭고를 동시에 자아내는 그의 자연은 고전주의적이면서도 낭만주의적이다. 이와 비교한다면 이전의 [무제] 시리즈는 상징주의적이고, [Tenseless] 시리즈는 초현실주의적이다. 그의 작품은 하나의 ‘이즘’으로 확정짓기 힘들다. 우주 공간 속에 흩뿌려진 은하수처럼 보이는 작품 [cosmos](2010)는 숲에 누워서 바라본 하늘이다. 오래된 숲에 바람이 불자 우거진 나뭇잎 사이로 빛이 들어온 것이다. 검은 장막을 찢어내는 불규칙적 파열은 그것을 지켜보는 이를 또 다른 차원으로 도약시킨다. 한낮을 칠혹 같은 밤으로, 숲을 우주적 공간으로 변모시킨 것은 꾸며냄이 아니라, 자연과의 절묘한 만남의 순간이고, 긴 여운을 남기는 조응이다.

은하수처럼 보이는 산란하는 빛의 무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또한 대우주 속의 한 원소, 바닷가의 모래알로 만들어버린다. 한 순간 우주가 일렁이는 과정이 포착된 이 작품은 자연 자체가 작품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자연 자체가 작품이 되는 이 순간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오지 않는다. 작가는 영원과 찰라가 만나는 순간을 기다린다. 작품 [forbidden forest](2010)는 공동체의 안녕이라는 제의적 목적을 위해 수백 년 전에 조성된 숲을 찍은 것으로, 살아있는 화석처럼 오래된 장소에 스며있을 법한 신성한 기운이 살아있다. 그의 사진은 장소의 야생성을 복원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밀림처럼 우거진 청록 톤의 숲은 웅암 위에 생겨난 특유한 식생으로, 수많은 세월동안 자연의 에너지가 흘러들어 휘돌고 나간 궤적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이 ‘금단의 숲’에는 인간의 흔적이 없지만, 그 영험한 장소를 보존하고 발견한 이의 현존은 분명하다. 병풍처럼 길쭉한 화면들이 이어져 있는 작품 [on the edge](2009–2011)는 어두운 배경에 흑성 표면 같은 바닷만 선명하다. 웅암으로 만들어진 제주 특유의 해안가 밤풍경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풍경들로 변모했다. 친근한 장소는 별다른 가감 없이 낮은 흑성이나 심해의 풍경, 또는 낡은 화첩 속의 동양화가 된다.

그가 선호하는 자연은 겹겹이 내려앉은 침전물의 질감과 촉감이 살아있는 곳이다. 파노라마 시점으로 펼쳐진 최근 작품들은 이전 작품에 비해 인공적 연출은 줄었지만, 객관적 지시대상을 건조하게 반영한 것은 아니다. 작가는 기계문명의 독주로 인해 사라져가거나 인간화된 모습으로 길들여진 자연의 원초성을 살려내려 한다. 거기에는 자연의 독특한 외관 뿐 아니라, 자연의 에너지가 있다. 이 에너지는 오래 묵은 것부터 막 발생하고 있는 것까지 다양한 상태와 강도를 지닌다. 에너지의 이합집산은 그의 작품 속 자연을 시적 감성과 무의식이 돌출하는 꿈의 무대로 만든다.



Geomun oreum-1  
150 x 190 cm  
C print  
2012



Geomun oreum-2  
150 x 190 cm  
C print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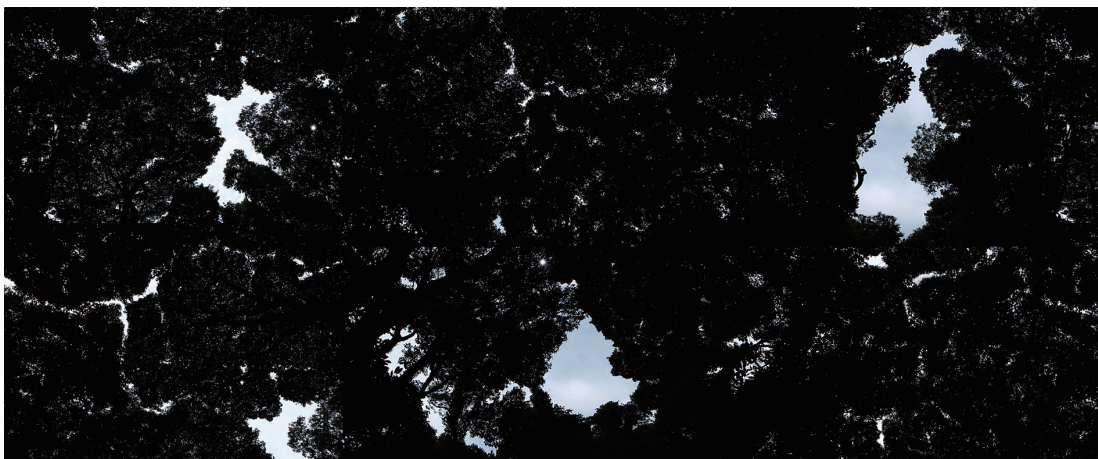
Forbidden forest-17  
150 x 190 cm  
C print  
2011



Forbidden forest-19  
150 x 190 cm  
C print  
2011







어두운 숲

유진상  
계원디자인예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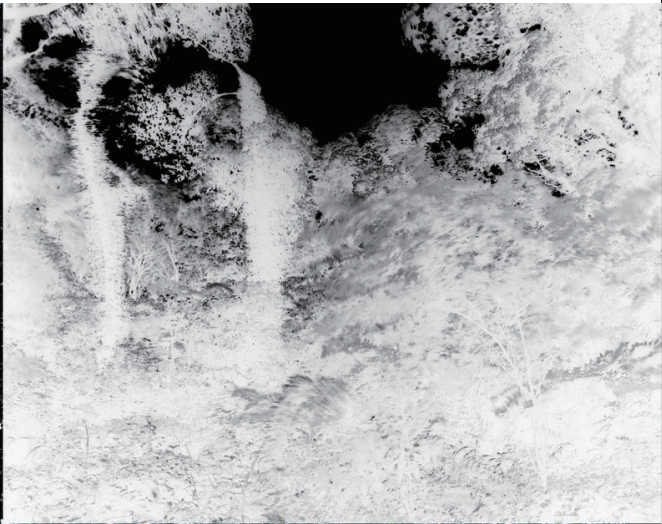
Forest obscura

Jin-Sang Yoo  
Professor,  
Kaywon School of Art & Design

교수숲과 그것의 바깥은 작가의 안과 밖, 관객의 안과 밖 그리고 사진의 안과 밖을 대체하는 공간이다. 숲의 안쪽에는 작은 공간들이 있다. 그곳에는 풀과 흙, 작은 돌들과 물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어둠 속으로부터 나온다. 숲이 그것들을 통해 표시하는 것은 세계의 양상이다. 그리고 세계의 존재는 하늘에 떠있는 것들에 의해 알려진다. 눈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고 그것들이 세계를 뒤덮는 동안 사진은 그것들의 기억을 기념한다. 모든 것은 사진적이다. 세계의 어둠은 사진의 그것과 닮아있다. 박형근의 사진은 이 두 세계 사이의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여준다.

The forest and its outside are spaces to replace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artist, audiences and photographs. There are small spaces within the forest, where grass, soil, small stones and water exist. All of them come from within darkness. What the forest represents through them is the aspect of the world. The existence of the world is recognized through things floating in the air. Snowflakes are falling down from the sky. While they are covering the world, photographs commemorate their memories. Everything is photographic. The darkness of the world resembles that of photography. Hyunggeun Park's works show events taking place somewhere between the two worlds.











The forest is an uncharted world that debilitates humans' perceptual abilities beyond culture and time. It is noteworthy that the Chinese character for 'forbidden (禁)' means looking at something invisible. The forest that is located somewhere in Jeju Island, hometown of the artist, was built as a firebreak against frequent fires by residents as part of instilling the spirit of water to control the spirit of fire. In fact, it was a universal method to cope with transcendental forces that people are facing as definite beings beyond cultural norms of folk belief. As time went by, the framework of this world view collapsed. And the forest suffered from the April 3 Jeju Uprising and also underwent negligence amid a development craze. Then, its conservational value was again in the spotlight under the name of protecting nature and at the center of interest and attention by those who safeguard ecological value and well-being. With the flow of checkered history, the existential value of the forest has changed and it, in essence, was a complete 'self-sustaining' entity that has existed in this way.

Like ‘Grey and White Grey Strata,’ <Forbidden Forest> is also deviated from the linear structure of time. The place is where past, present and a distant future get entangled. The forest is tightly closed not to allow access to people. There may be an object in it, but in fact there is no object. That is a boundless swamp. The sense that is used for observing the swamp does not confine to sight. Dim light trickling over the deep green surface where a black shadow is cast, the scent leaking through the intertwined forest, and the damp surface of dark soil on which everything came down. The whole body senses all of this synesthetically.

The forbidden land does not seem to allow hasty access even at a glance. The artist confessed that he decided to select the forest as an object, but could not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work at first. After all, he abandoned his desire to take the photograph of it. It was not until a transparent reconciliation took place that the forest let him have the misty feel. The work is free of representation and the color is still as it was. More important is that this is different from his previous works of art in terms of the layer of sight. He set the most important goal of embodying the object as complete as it is and tried to look at the whole picture by excluding minor elements.

문화와 고금을 막론하고 숲은 인간의 지각능력을 마비시키는 미지의 세계다. 삼가함을 뜻하는 한자, ‘禁’자의 형성원리가 잇닿아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제주도의 어느 한편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숲은 본래 수시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으로서, 화기(火氣)를 다스리기 위해 수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방책으로 조성된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민간신앙이라는 문화적 규정을 넘어 제한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직면한 초월적 힘에 대응하는 보편적 방법론이었던 것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세계관의 틀이 붕괴된 이후 이 숲은 4.3사건의 아픔의 과정을 겪었고 개발의 환상으로 열광하는 인간들에 의한 방치의 시간도 겪었으며, 자연 보호의 명목으로 보존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다시 생태와 웰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관심과 주목의 대상으로 존재해왔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지나며 그 존재에 덧씌워진 가치는 변화해왔으며 그 자신의 본질은 ‘스스로 그러하게’ 존재해 온 항상성의 완전체였던 것이다.

이 ‘금단의 숲’도 ‘회백색의 지층’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선형적 구조에서 이탈해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가 갈기갈기 영겨져 있는 곳이다. 이 숲은 사람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을 기세로 단단하게 닫혀져 있다. 그 안에 어떤 대상이 있겠지만, 사실 그 대상은 없다. 그것은 무한의 높이다. 그의 숲을 목도할 때 동원되는 감각은 시각에 국한되지 않는다.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진녹색의 표면 위로 은은히 새어나오는 빛, 뒤엉킨 수풀 사이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음, 모든 것이 내려 앉은 검은 흙의 표면에 배어 있는 음습한 물기, 이 모든 것들을 신체는 공감각적으로 감지한다.

이 금단의 땅은 한눈에 보기에도 설부른 접근을 허락할 것 같지 않다. 작업의 대상으로 결정했으나 처음엔 도저히 작업의 방향을 잡지 못했었다고 작가는 토로했다. 결국 그는 사진을 찍겠다는 욕심 자체를 버렸다. 그 투명한 화해의 과정 후에 비로소 숲은 그 은은한 질감을 허락했다. 이 작업 또한 연출이 전무하고 컬러도 있는 그대로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작업들과의 시선의 총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는 대상이 가진 완전체로서의 느낌을 구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여하한 미시적 요소들을 배제한 채 전체를 조망하고자 노력했다.

2011 갤러리 잔다리 개인전:  
시간의 울림 전시 서문에서



## 박형근

### 학력

- 2005 MA 이미지&커뮤니케이션 졸업(석사) 골드스미스컬리지, 런던대학
- 2004 시각미술대학원 졸업(석사 디플로마) 골드스미스컬리지, 런던대학

### 주요 개인전

- 2013 *금단의 숲: 꽃자왈, 숲의 기록*,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11 *시간의 울림, 갤러리잔다리*, 서울  
*기억의 항해*,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금단의 숲*, 제9회 다음작가상 수상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08 *Imaginary Journey*, 갤러리잔다리, 서울
- 2006 박형근 전, 금호 영아티스트 선정, 금호미술관, 서울  
박형근 전, The New Art Gallery Walsall 미술관, 영국

### 주요 그룹전

- 2013 *생생화화*, 경기도 미술관, 안산  
*My First Work*, 갤러리 잔다리, 서울  
*검내(炭川)를 건너온 빛*, 루비나 아트센터, 분당  
*TRAnSHformation*, 국립현대미술관, 아테네, 그리스  
*What's on*, 경기창작센터, 안산  
*어느 봄날에*, 동탄아트스페이스, 화성  
*Can Can China*, 스페이스 캔, 베이징  
*아티스트 포트폴리오-아카이브 라운지*,  
사비나 미술관, 서울
- 2012 *Encounter*, 제4회 대구사진비엔날레, 대구  
*화이트 써머*, 신세계 갤러리, 서울  
*뫼비우스의 띠; 신화적 사유를 삼키다*, 인터알리아, 서울  
*익숙한 낯섬*, 카이스 갤러리, 서울, 홍콩  
*꿈꾸는 신화의 섬*, 오백장군갤러리, 제주  
*밤의 너비*, 금산 갤러리, 파주  
*공명*, 우민아트센터, 청주  
*No.45*, 금호 미술관, 서울
- 2011 *공간의 기억*, 시안미술관, 영천  
*The photographer*, 롯데갤러리, 부산, 서울  
*방관자의 공연*, 한중일 현대사진전, 예술의 전당, 서울  
*Moments unfolded*, 신세계아트월 갤러리, 서울
- 2010 제3회 대구사진비엔날레 특별전-Asia Spectrum:  
*Multicentrism*, 대구  
*Chaotic harmony: 한국현대사진전*,  
산타바바라미술관, 산타바바라, 미국  
*만안의 이미지-기록과 기억*,  
APAP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 안양  
*격물치지*, 일민미술관, 서울  
*Maden Pictures*,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이미지의 복화술*, 인터알리아, 서울

### 수상 및 성과

- 2013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선정, 한국
- 2011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창작지원선정, 한국
- 2010 제9회 다음작가상, 박건희문화재단, 서울
- 2009 Pictet Prize 2009노미네이션, 스위스, 영국
- 2006 금호 영아티스트 선정작가, 금호미술관, 한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지원선정, 한국  
영국 Art council 전시기금선정, 영국
- 2005 Bloomberg New Contemporaries 2005 short list, 영국

### 작품 소장

- Ernst & Young, 런던, 영국
- Martini Arte Internazionale, 튜린, 이탈리아
- The Fotografie Forum International, 프랑크푸르트, 독일
- 금호미술관, 서울
- 일민미술관, 서울
- 박건희문화재단, 서울
-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 대구미술관, 대구
- 경기도미술관, 경기도
- 휴스턴현대미술관, 텍사스, 미국

### 창작 레지던시

- 2013- 경기창작센터, 한국
- 2014
- 2008-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미술스튜디오, 한국
- 2009